

#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이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 파견 근무한 지미연이 기획/제작했습니다.

##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공연예술 극장 리스트



1	남아공 케이프타운 '아츠케이프 극장'	06p	<a href="http://www.artscape.co.za">www.artscape.co.za</a>
2	남아공 케이프타운 '박스터 극장'	12p	<a href="http://www.baxter.co.za">www.baxter.co.za</a>
3	남아공 케이프타운 '마그넷 극장'	17p	<a href="http://www.magnettheatre.co.za">www.magnettheatre.co.za</a>
4	남아공 프레토리아 스테이트 극장'	21p	<a href="http://www.statetheatre.co.za">www.statetheatre.co.za</a>
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조벽 극장'	26p	<a href="http://www.joburgtheatre.com">www.joburgtheatre.com</a>
6	모로코 라뻏 '모하메드 5세 극장'	32p	<a href="http://www.tnm5.ma">www.tnm5.ma</a>
7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6세 극장'	37p	<a href="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a>
8	모로코 마라케시 '로얄 극장'	40p	<a href="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a>
9	세네갈 다카르 '그랜드 국립극장'	45p	<a href="http://www.grandtheatrenational.org/fr">www.grandtheatrenational.org/fr</a>
10	세네갈 다카르 '소라노 극장'	50p	<a href="http://www.theatrenationaldusenegal.com">www.theatrenationaldusenegal.com</a>
11	케냐 나이로비 '국립극장'	55p	<a href="http://www.kenyaculturalcentre.go.ke">www.kenyaculturalcentre.go.ke</a>
12	나이지리아 '국립극장'	60p	<a href="http://www.nationaltheatren.org">www.nationaltheatren.org</a>
13	나이지리아 '무손센터'	64p	<a href="http://www.muson.org">www.muson.org</a>
14	나이지리아 '프리덤파크 아트센터'	68p	<a href="http://www.freedomparklagos.com">www.freedomparklagos.com</a>



Republic of  
South Africa

##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화예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이 통치를 해오다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하면서 1996년 차별금지법에 의해 인종차별정책이 많이 수그러들었으나 여전히 10%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이 경제력을 장악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치안이 좋지 않다.

그나마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케이프타운 만큼은 남아공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케이프타운은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작은 유럽과 같으며, 도시 자체적으로도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남아공 최고의 관광지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남아공 문화예술단체를 살펴보면 음악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많다. 현재 남아공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손꼽는 것이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음악에 있어서는 식민지시대에서부터 세계 각지의 음악을 받아들이는 데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고 이들 음악을 남아공만의 색깔로 재탄생시키기도 한다. 클래식과 혁신적 음악 또는 음악을 연극, 무용 등과도 융합하여 남아공만의 색다른 방식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이다.

공연에 있어서는 전국에 약 100여 개가 넘는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고 공연장의 수만큼 공연문화 또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 음악, 춤, 드라마, 카바레, 풍자극 등은 물론 현대적인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히트작 등을 언제나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 저마다 특색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 오페라를 비롯, 발레, 클럽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 문화를 누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수도 프레토리아에 위치한 중앙정부 South African Government 아래 9개의 자치 지방행정기관이 있다. 케이프타운은 이 9개의 자치기관 중 Western Cape Government(WCG)에 속해 있으

며 WCG 건물 또한 케이프타운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Western Cape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스포츠부처의 정확한 명칭은 Cultural Affairs and Sports이며 이 부처는 크게 문화부와 스포츠레저부로 나뉘고 문화부는 다시 박물관 및 문화유산과와 문화예술과로 나뉜다. 각각의 기관이 2개의 분리된 과를 거느리고 있어 독립된 직속부서의 4개 과와 함께 문화스포츠부 산하에는 총 8개 과가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아쉽게도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전문 부서가 없는 듯했다. 주로 도서관사업과 박물관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부 주최의 축제 또한 모두 Wesgro라는 마케팅 전문회사에 일임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진 않고 있었다.

케이프타운에는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 관광지인 만큼 국제전시 및 축제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도심에 있는 국제컨벤션센터 또한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세계적인 공연들도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의 공연장을 찾고 있다.



## 01

## The Artscape Theatre Centre

남아공 케이프타운 '아츠케이프 극장'

ARTSCAPE



an agency of the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



극장명 The Artscape Theatre Centre

소유자 the Western Cape 주정부

개관일 1971년 5월 19일

조직형태 지방행정기관 소속 기관

- 극장종류 및 형태 - 오페라하우스 : 1,545석(장애인석 2),  
 객석수 프로시니엄 형식무대-15.35m(폭)×17.1m(깊이)  
 - 극장 : 540석(비활용좌석 포함),  
 프로시니엄 형식무대-13.25m(폭)×13.6m(깊이)  
 - 아레나극장 : 129석  
 오픈엔디드(open-ended) 형식무대-10m(폭)×5.5m(깊이)  
 - 기타 공간으로 연회장, 리허설룸, 전시장 및 광장 등이 있음  
 - 주건물과 별도로 12,000m<sup>2</sup> 부지에 장식스튜디오와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음

위원회 구성원



Prof Somadoda Fikeni  
(Chairperson)



Mr Neo Muyanga  
(Deputy Chairperson)



Dr Marian Elsie Jacobs



Ms Raelen Rorke



Mr Mjikisile Vulindlu



Ms Leigh Meinert



HRH Princess Calenhle Dlamini

홈페이지	<a href="http://www.artscape.co.za">www.artscape.co.za</a>
주소	D F Malan Street, Foreshore, Cape Town, 8001, 4107, Cape Town, 8000
전화	+27 21 410 9946
공연담당자	Guy Burbidge
이메일	<a href="mailto:artscape@artscape.co.za">artscape@artscape.co.za</a> / <a href="mailto:guyb@artscape.co.za">guyb@artscape.co.za</a>

1971년 개관 당시 극장명은 니코 말란 극장센터(Nico Malan Theatre Centre)였고, 2001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 및 사회변화에 의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공연예술 프로모션을 위해 1960년대에 설립된 케이프 예술위원회(the Cape Performing Arts Board (CAPAB))에 의해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후,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연극 네 부서를 두어 프로그램과 극장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상업중심 지구 14,000㎡ 부지에 위치하며, 공연예술, 영화, 관광, 엔터테인먼트, 국제회의 및 여러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CEO | SAHITE SAMB SARR

**아츠케이프는 남아공의 대표적인 극장이다. 물리적인 크기만이 아닌 아츠케이프 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아츠케이프 극장은 설립자체가 역사이다. 1971년 설립당시 이 극장은 백인들만 입장할 수 있었고 공연할 수 있었다. 오직 백인들만이 수준높은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 드라마 등을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4년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이 의미는 단순히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의 확대뿐 아니라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들에게도 흑백 차별없이 개방되었으므로 이후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설립당시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아츠케이프 극장은 다년간 소외지역을 위한 집중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학교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프로그램 등 광범위한 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 특히 발레,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관람하는 층은 아직 까지도 백인들이 많아 공연분야는 여전히 백인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편이다.

### 재정상태

2016년 예산은 81.7백만 랜드(약 66억원)이다. 그중 57.1백만 랜드가 정부보조금(약 70%)으로 지원받고 있다. 아츠케이프 극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예술문화부 산하 지원기관인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극장이다. 그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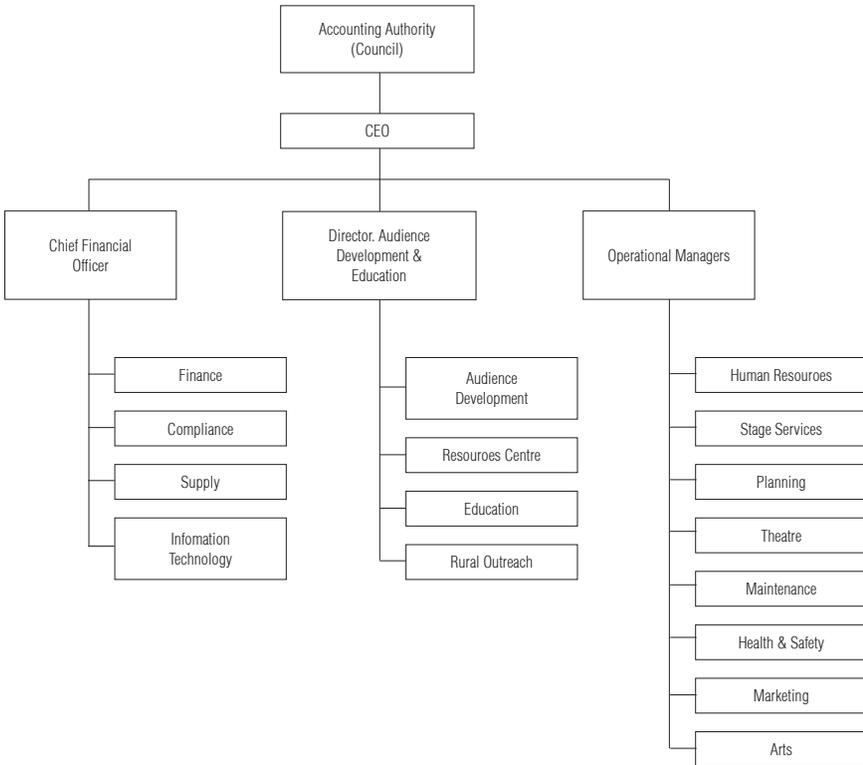
1 오페라하우스 / 2 아레나극장 / 3 기타 공간

외 자체 수익금 24.6백만랜드 중 대부분은 티켓수익 및 극장대관료인데 레스토랑 임차료가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극장운영**

직원들 수\_ 2015년 기준 직원수는 정규직 84명, 연단위 계약직 16명, 기타 파트타임 스탭들은 필요시 총원한다.

**조직도**



**공연 횟수**

지난 1년간 793편 (2015년 4월1일~2016년 3월 31일) 정도 올렸다. 무용작품이 가장 많은 48작품 181회를 올렸고 따라서 관객이 가장 많다, 무용은 주로 발레작품이 많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발레 대회도 큰 인기 있다. 콘서트-33작품 75회, 뮤지컬 12작품 130회, 오페라 7작품 23회, 청소년 및 아동작품(Youth Theatre)-28작품 186회, 드라마 및 코미디 7작품 177회, Variety shows 2작품 / 3회, 13작품 18회 등의 순이다.

### 해외작품

해외 작품은 지난 1년간 9편 정도 무대에 올랐다. 해외작품의 경우 초청하거나 장소대관을 하는데 2015년 10월에 중국대사관과 남아공 주정부 예술문화 부와의 협력으로 'the Zhejiang Cultural Festival' (October 2015)을 아츠케이프 극장에서 개최했다.

- 한국공연을 직접 올린 적은 없지만 최근 2016년 2월에 the South African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에 한국 발레팀이 참가한적 있다.

### 한국작품 초청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나?

솔직하게 우리 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초청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공연들은 주로 남아공의 주요 공연기획사를 통해 대관공연 되는 경우가 많다. 때때로 남아공 주정부의 문화예술부와 연계해 초청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다.

### 주요 공연기획사(Top promoters)

- Showtime Management (Hazel Feldman / hazel@showtime.co.za)
- Big Concerts (Attie Van Wyk / attie@bigconcerts.co.za)
- Pieter Toerien Productions (Pieter Toerien / pieter@theatreonthebay.co.za)



### 극장운영시 어려운점

모든 부분의 파트가 함께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느 한부분만이 아닌 여러 분야를 같이 무리없이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마치 네 개의 회사를 같이 꾸려나가는 것과 같다.

### 특화된 프로그램

웨스턴케이프 주정부의 지원으로 학교, 대학, 예술단체 등으로부터 직업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또한 음악 학습프로그램,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가 있다.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문제를 예술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완전히 독립된 작품들이 지역 커뮤니티로 옮겨감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역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 및 창의적 젊은 아티스트들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공모전, 워크숍 등을 꾸준히 개최하는 것도 특화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02

## Baxter Theatre Centre of the University of Cape Town

남아공 케이프타운 '박스터 극장'



극장명	Baxter Theatre Centre of the University of Cape Town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 대극장(666석) : 3층 규모, 프로서니엄 형태 - 콘서트홀(638석) : Von Beckerath Organ이 구비 - 골든 애로우 스튜디오 Golden Arrow Studio(172석) - 플립사이드 Flipside Theatre(203석) : 무대 가까이 착석 가능. - 기타 : 새롭게 60석 규모의 마삼베 공연장(Masambe theatre)이 마련됨.
홈페이지	www.baxter.co.za
설립일	1977년 8월 1일
주소	Baxter Theatre Centre, 297, Rondebosch, 7701 South Africa
전화	+27 21 680 3971

조직형태  
(주요인물)



**LARA FOOT**

대표/  
극작가 겸  
예술감독



**NICOLETTE MOSES**

협력프로듀서/  
플래닝매니저



**THAMI MBONGO-  
Zabalaza Festival**  
예술감독



**PATRICK CURTIS**

프로덕션매니저

담당자

(Planning Manager nicolette.moses@uct.ac.za / fahiem.stellenboom@uct.ac.za  
-Nicolette Moses)

박스터 극장은 1900년 초 케이프타운 시장을 역임한 윌리엄 던칸 박스터 (William Duncan Baxter, 1868~1960)가 케이프타운 대학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유산 기증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유명 건축가인 잭 바넷 (BARNETT, Jack Judah, 1924~1996)의 건축으로 설계되었다.

1977년 오픈 이래, 꾸준히 음악, 연극, 발레, 오페라 등 전문 엔터테인먼트에서부터 일반시민 친화적인 활동 등을 두루 선보이는 극장이다. 또한 아프리카 전통 공연예술을 소개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케이프타운 대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대학과 지역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추구한다. 4개의 공연장, 2개의 리허설룸 외 레스토랑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CEO | LARA-FOOT

#### 현재 직원수

정규직 37명, 비정규직 38명. 2014년에는 박스터 극장에서 제작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에 따라 많은 예술가들과 공연전문가들이 고용되었다.

#### 재정상태

2014년의 경우 총 예산은 2천6백만란드(약 21억 원), 이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등은 6백만란드(약 23%)이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했다. 자체 수입금은 티켓 수입이 1천3백만란드(50%가량)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대관료 및 기타 수입이다. 이중 운영비로 55%가량 사용되고 공연제작 및 상연관련 지출금으로 45%정도 사용되었다.

예전에는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남아공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공연분야 지원금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것은 어느 극장에나 만연한 사정으로 박스터극장 또한 운영자금이 넉넉한 편이 아니다. 박스터극장은 케이프타운 대학, 투자금, 협력 업체, 개인 등으로부터의 후원, 자체 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의 주요 투자기금 및 후원단체로는 Western Cape 문화체육부, Hosken Consolidated Investment Foundation, the Nussbaum Foundation 등이다.

자체 수익금으로는 티켓 수익외에 Bar나 레스토랑의 임대수익금, 작품의 투어 공연수익 등인데 공연장 운영에 턱없이 부족해 케이프타운 대학으로부터 펀딩을 받는 편이다.

## 공연횟수

연간 약 120~130편의 공연을 올리는데 이중 40여편은 페스티벌기간에 집중 공연되는 작품들이다.

## 특징적 프로그램

연례 공연축제인 Zabalaza Theatre Festival과 무용축제인 Baxter Dance Festival이 있다.

Zabalaza Theatre Festival(구, Ikhwezi라 불렸음)은 2011년 박스터 극장이 무대예술, 공연, 연출, 예술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팀과 비전으로 시작한 공연 페스티벌이다. 2016년 제 6회 ZABALAZA Theatre Festival에서는 3월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40작품을 선보였다.

축제에 선보이는 공연들은 드라마, 힙합, 댄스, 음악, 뮤지컬, 신체연극, 어린이공연, 시, 스토리텔링, 마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자발라자 축제는 케이프타운 정부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육성 및 학교문제에 따른 사회적 병폐 등을 인식시키고 이를 해결하는데 예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성과를 알리고 있다. 영어 이외에도 아프리카언어 등 4가지 언어로 공연된다.



Baxter Dance Festival은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무용페스티벌이다. 전문적인 무용팀을 초청하거나 우수한 공연팀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이고 수많은 학교, 기업, 단체, 댄스 스튜디오, 독립무용아카데미 등 아마추어 무용가들이 프린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참가하는 예술가들이 지난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80여 작품 총 400여명의 댄서들이 참가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박스터 극장은 아주 적은 금액의 지원금으로 수준높은 무용축제를 매해 거르지 않고 개최해 지금은 무용애호가들에게 케이프타운의 연간 인기프로그램으로 놓칠 수 없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축제는 신진무용가들과 무용단체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무용공연들을 선보이고 홍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스터 극장에서는 공연자들을 위해 조명, 음향 기술적 문제 보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티켓박스 운영, 홍보, 리허설 지원 등 모든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결해 주고 있어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을 알릴 더없이 완벽한 무대가 된다. 축제가 처음 시작된 2004년 이후 약 500개의 웨스턴 케이프 로컬 안무팀들이 작품들을 발표했고 무려 4천 명 넘게 무대에 올랐다. 아프리카 댄스는 물론, 컨템포러리, 클래식, 스페니쉬 등 다양한 형태의 무용작품들이 선보였다. 올해 제 12회 Baxter Dance Festival은 10월 8일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 03

## Magnet Theatre

남아공 케이프타운 ‘마그넷 극장’



극장명	Magnet Theatre
설립일	1987년
조직형태	이사진 7인(Mark Fleishman, Mandla Mbothwe, Jennie Reznek, Neo Muyanga, Yolanda Methvin, Sakhela Buhlungu, Joonji Mdyogolo), 경영위원 2인(Mark Fleishman-대표/예술감독, Jennie Reznek-예술감독/트레이닝코디네이터), 그 외 프로젝트에 따른 스태프로 구성.
홈페이지	<a href="http://www.magnettheatre.co.za">www.magnettheatre.co.za</a>
주소	2 Morley Rd, Observatory, 7925, Cape Town, South Africa
전화	+ 27 21 4483436 / +27 82 4692560
이메일	<a href="mailto:admin@magnettheatre.co.za">admin@magnettheatre.co.za</a> / <a href="mailto:jennyh@magnettheatre.co.za">jennyh@magnettheatre.co.za</a>

마그넷 극장은 신체를 활용한 현대적인 공연예술을 표방하며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교육활동 등으로 소통하는 독립기관이며 기업들의 후원금, 신탁기금(이사진)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마그넷 극장은 아동청소년극의 예술적 우수성으로 아시테지 국제 부분 수상후보로 노미네이트 되었다. 전문연극에서부터 청소년과 함께 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입선하였다. 2013년 1월에는 마그넷 극장의 사회공헌이 인정받아 웨스트 케이프타운 문체부로부터 연극부분을 수상했다.



CEO | JENNIE REZNEK

마그넷 극장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우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ull Time Training and Job Creation Programme은 원래 디렉터인 제니 레즈넥(Jennie Reznek), 만들라 엠보드위(Mandla Mbothwe)와 마크 플레시먼(Mark Fleishman)에 의해 설계되었고, 수업은 고도로 숙련 된 전문예술가와 교사에 의해 진행된다. 20명 정원으로 모집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능은 있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 예술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놀이수업, 상상력, 신체극, 발성, 노래, 춤, 즉흥극, 극창작 등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쇼케이스 작품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선보이며 공연과 연계된 극장 관계자들, 그룹들, 커뮤니티와 소통한다. 마그넷 극장의 이러한 훈련의 초점은 신체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이용하는 방법과 그것의 역할을 개발하는 데에 있으며,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데 목표가 있다. 까다롭게 선발된 재능있는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교통비와 식비는 물론 급여역할을 하는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기업들의 후원을 유치하는 것이다. 몇몇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미를 높이 사 몇 년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후원금이 끊어질 염려를 대비해 다양한 기업들에 파트너쉽 제안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과정들을 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쇼케이스를 해 공

연장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러한 마그넷 극장의 노력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재능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술, 전문지식, 방향 감각을 제시해 창의적인 사회에서 충분히 고용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졸업생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78%의 졸업생들은 전문영역에 취업이 되었고 그 중 일부는 마그넷 극장에 테크니션, 배우, 디자이너, 기획인력으로 고용되었다. 또한 창의적인 새로운 작품들도 만들어 내고 있다. 2016년 올해 말에는 5번째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오디션을 할 것이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두 번째 독특한 프로그램으로는 Culture Gangs라는 커뮤니티 예술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케이프 타운에 존재하는 연극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운쉽의 학생들, 실업 청년 등이 연극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소규모 모임들이 많이 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들이 범죄가 아닌 문화에 열정적이라니 얼마나 기특한가!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정기적인 워크숍 기회를 주고 극장방문, 휴일프로그램, 경력지도 등을 통해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이들이 쇼케이스를 준비해 가족이나 공연관계자들을 초대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징적 공연

###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공연 Scoop

2주에서 12개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남아공 최초의 베이비 공연이다. 텐트안 편안한 공간에 총 6명의 엄마와 아기들이 볼수 있는 공연이다. 4명의 공연자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아기와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 7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KNOCK

남아공 토속 이미지를 소리와 상상으로 표현한 공연이다. 4명의 공연자들이 공간에 들어가 나무 등의 자연물이 되는 것이다. 상상속의 이미지를 표현해보고, 낯선 소리, 마법같은 동물소리등을 내고 숲속 이미지를 상상하며 몸으로 소리와 이미지를 표현, 노래를 하기도 한다.



Magnet  
Theatre



## 04

## The South African State Theatre

남아공 프레토리아 ‘스테이트 극장’



극장명	The South African State Theatre
설립일	1981년 5월 23일
홈페이지	<a href="http://www.statetheatre.co.za">www.statetheatre.co.za</a>
주소	320 Pretorius Street, Pretoria, 0002, South Africa
전화	+27 (0)12 392 4000 / +27 (0)12 392 4283
팩스	+27 (0)12 322 3913

이메일 info@statetheatre.co.za / venecia@statetheatre.co.za

극장종류 및 형태 총 6개의 공연장이 있다.

객석수

- RENDEZVOUS THEATRE : 268석, 무대 11m(폭)×4.5m(깊이)
- OPERA THEATRE : 1300석, 무대 25.6m(폭)×21.5m(깊이), 60명의 뮤지션 수용가능
- DRAMA THEATRE : 640석, 24.9m(폭)×16.5m(깊이), 2사이드무대 17.9m(폭)×16m(깊이)
- ARENA THEATRE : 288석, 12.2m(폭)×11m(폭)×5m(높이), 양끝벽 폭은 20m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
- INTIMATE THEATRE : 110석, 럭셔리한 분위기로 소규모의 카바레식 공연이나 디너쇼와 같은 공연이 이뤄지는 공연장.
- MOMENTUM THEATRE : 120석으로 구성  
그 외 이동형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다.

1981년 오픈했지만 2000년 재오픈하며 블록버스터급 공연(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외)을 선보이며 코미디에서부터 무용, 공연, 연극, 오페라, 축제, 아동·청소년극, 재즈, 락 및 전시와 문학,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재정상태

2015년 예산은 약 9천만랜드(약 73억원), 2014년 7천5백만랜드에서 1천5백만랜드가 올랐다. 이중 6천5백만랜드가 정부보조금이고, 2백만랜드가 광고 및 후원수입금, 2천3백만랜드가 자체 수익이며 2014/2015회계연도에는 2천만랜드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공연장 자체 수입금으로는 대관료,

기념품판매, 티켓수익, 의상 및 소품 대여료, 주차장수입 등이다.

#### 조직구성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구조는 디렉터-아트 디렉터-파이낸셜디렉터-테크니컬 디렉터

행정 직원은 약 90여명

아트디렉터는 100여명의 아티스트 멤버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인적자원의 관리, 인프라 관리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

### 한해 공연횟수

2015년 총 137편 작품이 727회 공연되어 약 13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주된 공연장르는 드라마, 뮤지컬, 코메디, 아동극, School Set-works, 발레, 음악 등이고, 컨퍼런스나 교육이벤트, 기업시상식 같은 행사도 개최했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많이 하는 편이다.

### 구분되는 프로그램

드라마 공연이 가장 많고 뮤지컬, 음악, 코메디, 댄스 순이다. 드라마 공연은 남아공 스토리를 다룬 공연을 많이 한다. 아파트헤이트 중 남아공 자유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많은 편이다. 뮤지컬 또한 관객이 많은 편이고 음악공연은 재즈가 주를 이룬다.

### 연간 공연횟수

거의 매일 공연하고 있으며(일요일 쉬) 1년에 1~2팀은 해외공연을 초청하는 편이다.

### 운영시 어려운점

스테이트 극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작년까지 Market Theatre Foundation 의 CEO를 지냈고 그전에는 역사박물관에서 주로 일을 했다. 마켓극장재단 이전에 Robben Island Museum 관장을 5년간 역임했다. 훌륭한 공연들을 많이 올리는 극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스테이트 극장의 CEO를 맡게 되어 부담이 크다. 업무를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적은 예산, 관객유치 등이 큰 문제 아니겠는가. 스테이트





극장은 변화기에 있어 교통편도 항상 문제인 것 같다. 효율적인 관객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가장 성공적인 작품

2014년에 6주간 공연했던 뮤지컬 MARIKANA가 당시 관객들의 호평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다.

뮤지컬 마리카나는 2012년 8월 마리카나 광산에서 발생한 노동자파업으로 폭동·폭력사건을 다룬 사회적 비극공연이다. 마리카나 광산사건은 광부들이 임금인상 요구를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했는데 여러 노동조합의 대립이 격화되어 폭력사태에 이르게 되어 3천여명의 경찰과 충돌해 34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인명이 부상하는 등 큰 폭동으로 번진 사건이다. 근 65년전 아파트헤이트 시대의 흑인 차별정책이 현대에 되살아난 듯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노동쟁의이며 이를 다룬 내용의 뮤지컬이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무대는 우아했고 훌륭한 음악과 조명은 관객들을 만족

시키기에 충분했다. 점점 줄어가고 있는 남아공 극장의 관객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매회 공연은 관객들로 가득 차 MARIKANA사건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뮤지컬은 마리카나 사건당시를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리카나 위원회는 아직도 그날에 대한 진상을 조사중이다.

### 극장이 지향하고 있는 바

새로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은 변함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극장의 가장 큰 목표는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통합하여 최고 품질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술가와 실무자들이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 배우고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극장에서는 직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을 받고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관리에 힘써 개개인의 예술적 자질과 야망을 복돋아 내적 기반을 단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세 번째는 후원자들이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관객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만큼 책임과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신뢰가 가는 경영으로 우수한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이다.



## 05

## The Joburg Theatre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조백 극장’

theatre for a world class african city  
**the JOBURG THEATRE**  
 complex



극장명 The Joburg Theatre

설립일 1962년 8월 16일

극장종류 및 형태 총 5개의 대표적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객석수
- 넬슨 만델라 공연장 The Mandela (1069석) - 400m<sup>2</sup>의 무대를 자랑하는 메인 공연장은 2001년 넬슨 만델라의 이름을 차용하여 The Mandela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 프린지 공연장 The Fringe (251석) - 이전에 테손 공연장(Tesson Theatre)으로 불리던 곳으로 72m<sup>2</sup> 무대가 구비되어 있다.
  - 피플스 공연장 The Peoples(176석)- 무대 52m<sup>2</sup>
  - 스페이스닷컴 Space.com(148석) - 실험적인 공연 및 리허설, 워크숍, 교육활동 등에 주로 사용된다.
  - 댄스 스튜디오 Dance Studios - 조백 발레 및 각종 리허설 등을 대로(시몬즈스트리트 Simmonds St.)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이 두 곳 있다.

홈페이지	www.joburgtheatre.com
주소	163 Civic Boulevard Braamfontein, Johannesburg, South Africa
전화	+27 11 877 6800
이메일	info@joburgtheatre.com / claire@joburgtheatre.com
참고연락처	- Community Development Manager(Nondumiso Sithole) 011 877 6867 / nondumiso@joburgtheatre.com - Youth Development Marketing Intern(Precious Motloung) 011 877 6867 / precious@joburgtheatre.com - Resident Stage Technician(Miza Ngaye) 011 877 6840 / space.com@joburgtheatre.com

요하네스버그 시민극장으로 알려져 있던 조백 극장은 1980년대에 재정비를 하고 1990년대 초 새롭게 열린 후 2009년 브랜드이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올리는 것은 물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창작하는 요하네스버그의 몇 안 되는 독립제작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조백극장은 접근이 편리한 환경에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감성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음악, 연극, 시, 무용 등 다양한 공연예술분야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고자 한다.



CEO | XOLISWA  
NDUNENI-NGEMA

조백 극장은 요하네스버그 시 소유의 독립적인 자치 기구 성격의 기관으로 소외지역 관객들을 지원하는 시민극장의 역할과 관객의 다양한 욕구 양쪽을 모두 포용하면서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는 극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들 아이들과 청소년 및 노인들에게 공연티켓을 제공하는 보조금 제도, 미래를 위한 꾸준한 작품제작을 위해 250석의 프린지극장을 젊은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3세에서 12세 아이들을 위한 공연제작도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무용커뮤니티들을 위한 학습지원제도 마련, 청소년 개발 및 에이즈 퇴치를 위한 사회적 문제의식프로그램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노력은 지속적 안 전망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가시켜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공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 조백극장은 루드포트 극장(Roodepoort Theatre)과 소웨토극장

(Soweto Theatre)을 합병하여 한명의 CEO, 하나의 이사회 등으로 운영하는 통합과정을 거쳤다. 조벽극장의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세 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32명의 영구적 정규직 인적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한국공연팀 초청 사례

2012년 한국의 유니버설 발레단이 공연한 적 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이 한-남아공 수교 20주년으로 초청한 공연이었는데 남아공은 발레가 인기있는 장르인데 당시 대규모 한국의 공연단은 매우 수준높은 아름다운 공연으로써 전석 만석의 인기있는 공연이었다. 예산문제상 극장에서 그렇게 대규모의 공연팀을 초청할 순 없지만 그러한 기회로 다시 한국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 극장운영시 어려운 점

스폰서가 없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국가 보조금 없이 전액 자체 수익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재정상태는 어려운 편이다. 아티스트들 역시 적은 수입으로 공연을 제작하고 무대에 오르고 있다. 남아공에도 예술가들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다. 전세계 모든 예술가들이 그렇듯 금전적 어려움 속에 창의적 작업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젊은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개발 프로그램 등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장 성공적 작품들

코메디 원맨쇼, 판토마임 형식의 발레 작품이 인기가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초청작품으로 2011년에 호주의 월드투어 댄스쇼인 'Burn



The Floor'라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2012년의 남아공 다른 도시에 8주간 투어공연 매니징요청을 받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조벽극장에 있어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모험이었다. 케이프타운의 시티케이프 극장과 더반의 플레이하우스 극장 및 무용파트너프로덕션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투어공연을 할수 있는 기술진들의 역량을 점검하는 등 거의 1여년을 준비했다. 8주간 총 59회의 공연을 하고 관객 42,000명을 동원하여 극장에 약 7,800,000랜드의 티켓판매수익을 안겼으며 40만랜드의 투어매니징 수입도 추가로 얻었다. 해당 시즌의 금전적 수익과 작품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극장 기술진들의 역량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공연의 성공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 다른 극장과 구별되는 프로그램

매년 하는 무언극인 판토마임 동화 뮤지컬이다.

무언극은 전통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아이들과 함께 가족 전체가 관람하기에 아주 좋은 점이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매년 한편씩 하려고 한다. 2013년에 올린 책과 콩나무 같은 판토마임극을 했을 때에는 지역사회 특수학교 아이들을 초청하여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연장에 처음 와보는 경우여서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그 외 조벽프린지(THE FRINGE AT JOBURG THEATRE),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루드풋 극장(Roodepoort Theatre)과 소웨토극장(Soweto Theatre)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2개 극장과의 교류프로그램 등이 특징적인 것이다.





##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모로코의 문화예술

모로코는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토착민 베르베르족 고유의 문명과 기원전 1100년경부터 유입된 페니키아 문명, 카르타고 문명, 로마, 반달족, 그리고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의 영향과 이슬람 문명이 혼합된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신석기시대 이래 형성되어 온 베르베르인의 문명과 기원후 7세기경 들어온 이슬람 문명이 모로코 문화의 두 중심축을 형성한다.

모로코가 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전통문화와 고유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1956년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서구 문화의 비중이 감소하고 고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1%를 문화시설 건설과 예술인 지원에 배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해 가고 있다.

모로코의 문화는 지역별로 발전되어 종합적인 연구시설이 많지 않은 주 주요 시설로 연구·대중예술 국립연구소(1987년 설립), 왕립 아마지그(Amazigh) 문화 연구소 등이 있다.

모로코를 대표하는 전통음악에는 아랍-안달루시아 음악과 베르베르족 음악이 있다. 모로코의 아랍-안달루시아 음악은 아랍 음악의 전통에 스페인(Spain)의 무슬림(이슬람) 음악이 더해져서 탄생한 독특한 음악이다. 15세기에 무슬림이 스페인에서 물러났을 때 안달루시아 음악이 모로코에 뿌리를 내렸다. 특히 수도인 라باط(Rabat)과 우즈다(Oujda)에는 오늘날에도 안달루시아 음악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 다른 베르베르족 음악은 아랍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모로코의 주인이던 베르베르족만의 음악이 훗날 아랍 음악과 혼합되어 발전한 것이다. 베르베르족에게 음악은 유희이기도 하는 이야기와 문화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베르베르족 음악은 오늘날에도 종교의식, 결혼식, 집회, 축제 등에서 들을 수 있다. 악기가 곁들여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육성과 춤으로 구성된다.

춤에는 아히두스(ahidous), 아후아시(ahouach), 그나우아(gnaoua) 등이 있다. 아히두스는 아틀라스 중앙부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집단 원무이다. 주로 추수를 기념하는 마을 축제 때 온 마을 사람이 참여해 즐긴다. 악기는 주로 벤디르(bendir)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벤디르는 한쪽 면만 칠 수 있게 만든 북으로 한 손으로 두들긴다. 아후아시는 아히두스와 비슷하나 주로 남부 지역에서 즐기고 여성들만 춤을 춘다는 점이 다르다. 그나우아라는 말은 원래 사하라 이남에서 노예로 데려온 흑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남부 모로코의 흑인 음악사와 곡예사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 한때는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매우 드물게 행해지는 춤이다.

모로코의 문화예술 축제(Festival)는 음악 및 퍼포먼스 예술의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별로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주요 축제로는 5월 라바트 마와진(리듬)제, 5월~6월 페스 세계종교음악축제, 6월 마라케시 대중예술축제, 7월 중 볼리빌리스 예술축제, 6월 옛사우이라 그나우아 음악축제, 7월 아실라 문화축제, 10월 라바트 우다야 재즈축제, 12월 마라케시 국제영화제 등이 있다.

모로코는 외국문화의 자국내 유입(공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개방적이며, 공연허가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국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연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Theatre National Mohammed V

## 모로코 라باط ‘모하메드 5세 국립극장’



극장명	Theatre National Mohammed V
소유자	모로코 정부
개관일	1962년 3월 14일
조직형태	국립기관(Public Organization)
극장종류 및 형태	프로시니엄
객석수	1600석
무대사이즈	18m*8m
홈페이지	www.tnm5.ma
주소	Avenue El Mansour EDDAHBI B.P 172 Rabat RP Rabat, Morocco
전화	05 37 70 73 00 / +212 68 42 41 71 / +212 37 70 75 28

연락 담당자 (Head of the organisation)	Abdellatif NASSIB EL MESNAOUI
이메일	directiontnm5@yahoo.fr / direction@tnmv.ma
예술국 대표전화	212 5 37 70 75 28
휴대전화	+212 68 42 41 71 / + 212 61 30 02 44



수도 라باط에 위치한 모하메드 5세 극장은 문화와 예술을 창작하고 유통하는 모로코의 대표적 문화예술 기관이다.

음악, 발레,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극 등 공연작품 초청 및 제작 등은 물론이고 국제교류, 공동제작 등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축제 등 기타 모로코 문화부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부의 감독하에 있지만 재정의 자율성을 가진 공공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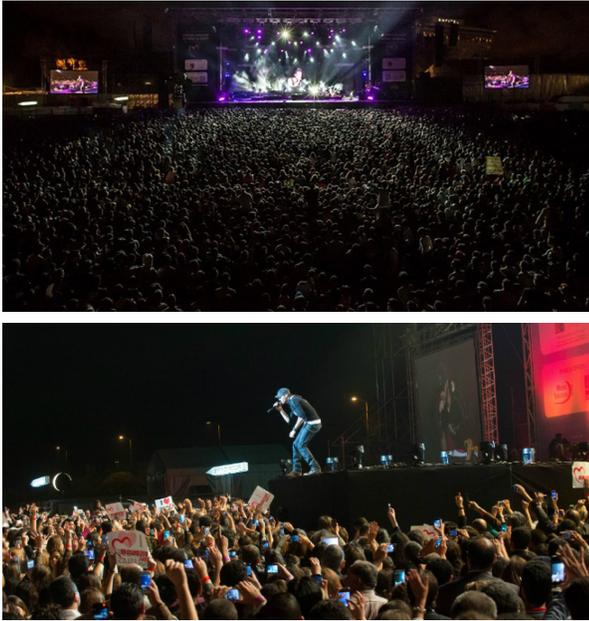


CEO | MOHAMMED  
BENHSAIN

### 극장에 대한 소개

라밧 모하메드 5세 국립극장은 1962년에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 모로코 문화예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립이후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짜여진 연간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으로 라밧 모하메드 5세 국립극장은 현재 모로코 대표극장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발휘하는 공간으로서 예술가들과 제작자들과의 만남을 이끌고 많은 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다. 문화예술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연극, 오페라, 무용, 테마뮤지컬, 오케스트라, 스탠딩 코미디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모으고 있다. 모하메드 5세 국립극장은 “라밧, 빛과 문화 중심도시”라는 타이틀로 문화가 기반이 된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따라 라밧을 모로코 이미지를 대표하는 우수한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





### 특징적 프로그램

세계 최대 음악축제 중 하나인 마와진 국제음악축제(Mawazine World Rhythm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가 여기 수도 라뻏(Rabat)에서 매년 5월에 열린다. 작년의 경우 전 세계 음악가들 약 90팀이 참가해 관람객을 무려 250만명을 끌어 모았으며, 2013년 미국의 MTV Iggy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음악축제 5위중 2위를 차지하기도 하여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최고의 음악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스티비 원더, 머라이어 캐리, 엔리오 모리꼬네 등의 세계적인 팝가수들도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로코를 찾는 가장 핫한 축제로서 올해 15회째를 맞는다. 작년에는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를 비롯해 마론5, 스팅 등이 참가해 여러모로 큰 이슈가 되었고 올해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초청될 예정이라 분위기가 뜨겁다.

마와진 국제음악축제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음악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청년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되며, 모로코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5월 20일~28일 9일간 개최로 예정되어 있으며 마와진 국제음악축제로 인해 뚜렷한 도시의 정체성이 없던 라뻏이 국제적인 축제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15회째를 맞아 더욱 인기있고 내실있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제적 인기축제로서 모로코의 상징적 행사가 되었다.

### 한국작품 초청사례

한국작품은 2013년에 음악작품을 대사관에서 초청하여 무대에 올린 적이 있다. 아시아작품을 많이 하는 경우 연간 5편 정도 한다. 주로 모로코 주재 대사관에서 초청하여 장소를 대여해주는 편이다.



## 07

## Theatre Mohammed VI Casa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6세 극장’



극장명	Theatre Mohammed VI Casa
소유자	카사블랑카 시정부
개관일	2006년 9월 12일
조직형태	국립기관(Public Organization) - 카사블랑카 시립극장
객석수	648석 (544 orchestre et 104 balcon)
홈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a>
주소	bd Mohammed V ang. rue Lieut. Mahroud Mohamed, 20000, Casablanca, Morocco
전화	+212 5224-09945 / +212 661 049 388
이메일	tm6casa@gmail.com
극장시설 및 객석수	극장(650석), 워크숍 공간, 정원, 도서관, 기타 공간을 포함하여 총 8000㎡ 규모.

모하메드 6세 극장은 카사블랑카 시립극장으로서 1915년 당시 사령관이었던 Lyautey에 의해 모로코-프랑스 전시 개막을 계기로 중앙시장 뒤편에서 희가극(Comic Opera)이 공연되었다. 이 희가극의 기업 스폰서가 배후에서 극장운영에 주요 역할을 하여 1922년 임시 개관을 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 시위위원회에서 모로코 독립(1956년 4월) 이전까지 방치되어 있던 극장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하여 운영되다가 2006년 재개관을 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 카사블랑카시의 유일한 문화공간이나 예산부족으로 주로 시민회관 기능의 대관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사블랑카시에서는 2020년 개관 목표로 아프리카 최대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랜드 모하메드 5세 카사블랑카 극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EO | MOHAMMED VI CASA

#### 주된 공연장르

주요 장르는 음악 및 무용, 원맨쇼이다. 음악은 아랍, 모로칸, 클래식, 락, 힙합, 전자음악, 재즈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올리며 인기가 있다.

댄스는 클래식, 모던댄스, 힙합 등을 주로 올리고, 원맨 코미디쇼는 언젠가 인기가 많다.

공연은 모로칸어와 불어 공연들을 주로 하고, 기타 경영컨퍼런스, 정치적 세미나 용도로 대관되며, 상업전시, 축제 등이 열리기도 한다.

#### 해외공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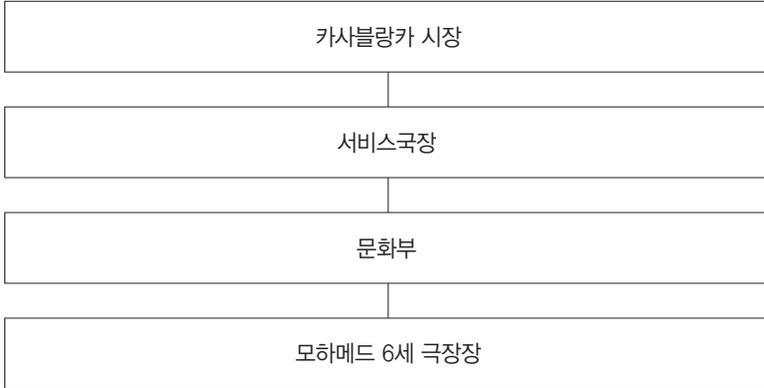
해외공연을 무대화한 사례는 유럽 약 12개국 정도이다. 한국공연도 한번 올린 적이 있다. 2012년에 모로코와 한국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서 힙합 비보이 그룹인 익스트림 크루(Extreme Crew)와 퓨전 국악팀인 소리야(Sorea)를 2012년 초청해 모로코 비보이 그룹과 함께 “Le Maroc Rencontre La Coree” 라는 제목으로 수도 라باط과 카사블랑카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비보이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당시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이 카사블랑카시에 협조요청을 해와 초청이 이루어졌다.

중국, 일본 등의 공연을 올린 적이 있고 주모로코 인도대사관 초청으로 올해 2016년 5월 2일~10일까지 인도 공연을 올린다. 그 외 러시아, 조지아 등의 공연을 올린 바 있다.

### 재정상태

카사블랑카시 재정에 100% 의존하고 있다. 무료공연 혹은 아주 적은 금액의 티켓 수익이 발생, 이는 홍보물 제작 정도에 쓰이고 있다. 주로 대사관에서 협조, 공연을 초청하는 경우 무료 대관을 해주고 있다.

### 조직도



### 공연장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

아시아 공연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에 관심이 많다. 한국공연을 했을 때에도 반응이 매우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흥미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많은 작품들을 하고 싶지만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훌륭한 작품들을 초청할 수가 없다. 대관만 하더라도 인력운영과 홍보를 위한 비용조차 늘 부담스런 형편이다.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초청에 관한 사항은 카사블랑카시의 문화부에서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진행되는 편이다.



## 08

## Theatre Royal

## 모로코 마라케시 '로얄 극장'



극장명	Theatre Royal
조직형태	국가 공공기관
홈페이지	<a href="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a>
주소	Hivernage, Avenue Hassan II , 40000 &#8211; Marrakech, Morocco
이메일	ilham_theatre@hotmail.net
전화	+212 5 24 43 15 16 / +212 6 61 21 05 91
극장형태 및 객석수	- 오페라하우스(880석) : 공사중 - 야외 원형극장(1,200석)

튀니지 건축가 찰스 보카라(Charles Boccara)에 의해 1970년대 로얄극장 설립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건축의 디자인과 예산문제로 25년 이상 건축과정에 의 어려움이 있었다.

2001년 9월 19일 외부 공사가 마감되어 1200명 수용 가능한 외부 극장이 완

료되었다. 그러나 내부 8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는 완공이 되지 못한 채, 모하메드 5세에 의해 개관되었다.

로마 양식에 영감을 받아 건축된 외관은 지역 명소가 되었으나, 내부는 그에 반해 훌륭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다.

모로코 로얄 필하모닉 행사와 같은 대형 행사 외에는 공연에 제약이 있다.

관련사진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bwpWm1irvoQ>)



CEO | ILHAM ABARRO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더니 무척 반갑다. 한국의 공연은 무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마라케시에서도 초청할 수 있다면 기쁘겠지만 무대가 공연을 유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극장 내부에 메인 공연장이 건축중이었지만 이미 반 정도 공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내부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인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극장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로얄 극장은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기차역 바로앞에 위치해 마라케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내부 곳곳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에 걸맞는 무대가 열린 완공되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로 몇 년째 흉물스런 상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연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협소하긴 하나 야외에 원형 공연장이 있다. 현재에도 음악공연, 원맨쇼형 콘서트, 마술공연, 비보이, 서커스 등 야외에서 가능한 공연들을 하고 있다. 저녁의 야외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건물 안의 오픈형 공간은 전시회나 강연 등을 위해 활용되는데 오늘도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 특징적 프로그램

2004년부터 개최된 국제 마술페스티벌(International Magic Festival)이 로얄극장에서 개최된다.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이 축제는 국제적으로 이름난 마술사들이 참가해 자원봉사자들도 깜짝 놀래키는 마술을 선사해 해마다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

올해로 6회째 맞는 마라케시 비엔날레가 있다. 로얄극장에서 열리는 메인프로그램 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며 모로코 예술인 100여명을 포함해 무려 400~500여명의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큰 축제이며 이 작은 도시에 약 3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은다. 모로코 예술의 현재를 대변하며 2016년 제 6회를 맞는 올해는 흔적(Traces)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어 디지털과 비주얼 아트로 도시의 현재, 과거, 미래의 문화예술을 조망해보는 장이 되었다.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세네갈의 문화예술



146년간 프랑스의 통치를 받다가 1960년 독립한 세네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지만, 식민통치를 경험했다고 하여 프랑스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않다.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인 레오폴 세다르 생고르(Leopold Sedar Senghor)는 세네갈의 문화운동가이자 대문호이며 아프리카 대표적 흑인시인으로 여러 차례 노벨상 문학상 후보로도 올랐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20년간 세네갈 대통령을 역임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물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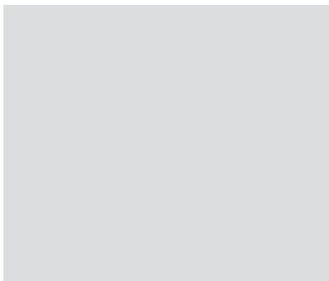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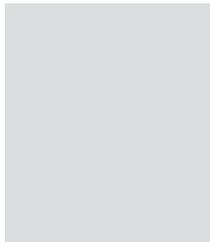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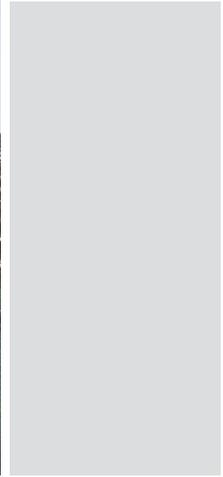
대통령으로서보다 시인으로서 더욱 유명한 삶을 산 그의 시는 흑인 문명과 아프리카의 생명력을 노래했으며, 세네갈을 포함한 서부와 중부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20세기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지식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생고르 대통령은 독립직후부터 서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세네갈 전통 예술 육성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소라노 국립극장 및 국립 전통무용단을 창설하였다.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예술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초기의 적극적 육성정책으로 미술, 조각, 섬유 분야에서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세네갈은 노예 신분이었던 흑인들이 기원이 되는 재즈(Jazz)음악에서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재즈의 기원은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들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서 아프리카의 문화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세네갈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40년대 세네갈 제2의 도시 생루이(St. Louis) 출신의 밴드들이 파리와 유럽에서 활동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도 국제재즈축제(St. Lou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가 매년 5월 생루이에서 개최되고 있다.

세네갈 음악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현재의 팝스타들은 음악의 기초를 전통 사운드와 리듬에 두고 있다.

세네갈 현대 음악의 아버지는 이브라 카쎄(Ibra Kasse)로, 1960년대 초에 '스타 밴드 드 다카르(Star Band de Dakar)'를 결성했다. 현재 스타들 중 선두주자는 유쑤 은두르(Youssou N'Dour)로 전통음악과 서양 팝, 록, 소울을 결합하였으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공식 주제곡인 "La Cour des Grands"을 직접 작곡하여 열창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외에도 투레 툰다(Toure Kunda)는 세계적인 연주자이며, 북부 세네갈 출신 플족인 바바 말(Baaba Maal)은 종족의 언어로 노래하며 훨씬 '아프리카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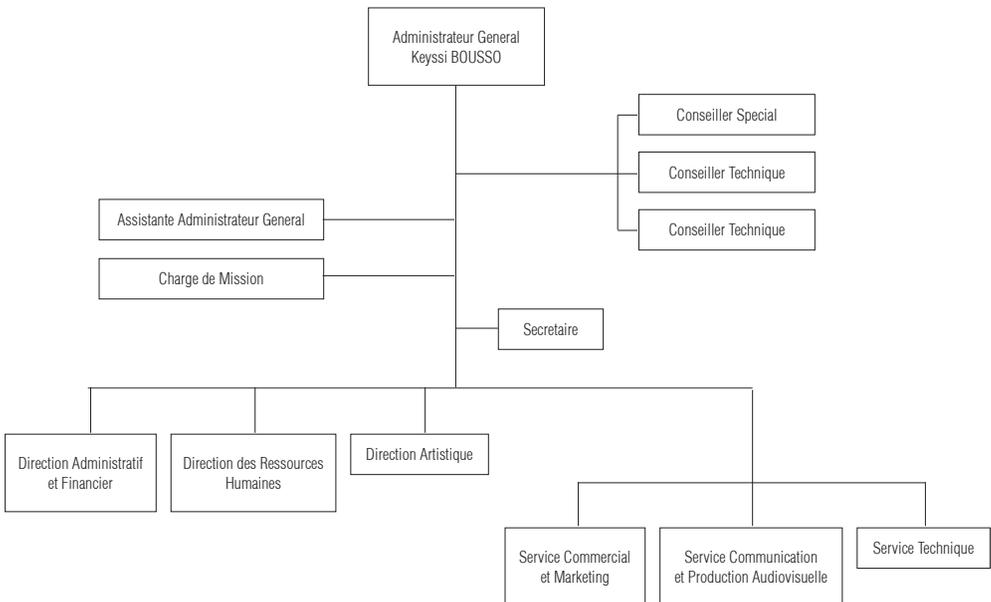
## Grand Theatre National de Dakar

세네갈 다카르 ‘그랜드 국립극장’



극장명	Grand Theatre National de Dakar
소유자	세네갈 정부, 중국자본 투자를 받았으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설립일	2011년 4월 15일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 이탈리아식 프로시니엄 무대 - 대극장(1,800석) : 3헥타르 부지에 드레싱룸, 리허설룸이 있다. - 컨퍼런스홀(500석) - 회의실(50석) - 장비실, 문서보관실, 사운드실, 비디오촬영실, 연습실, 전시장 등을 포함한 6층 건물로, 총 206개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홈페이지	www.legrandtheatrenational.sn 공식 홈페이지 www.grandtheatrenational.org/fr 다카르 국립극장 홍보영상(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rtz3kUxOVY">https://www.youtube.com/watch?v=Vrtz3kUxOVY</a> )-
주소	Autoroute Prolongee X Lamine Gueye, Dakar, Senegal
전화	+221 33 822 57 00
연락 담당자	Keyssi Boussou / Babacar Bé
이메일	grandtheatrenational@gmail.com / babschap6@yahoo.fr

### Organigramme Grand Théâtre National



※ 직원은 디자이너, 기술자, 행정직원으로 구성됨

세네갈의 수도에 자리하고 있는 그랜드 국립극장은 1965년에 지어진 1,100석 규모의 낡은 공연장이 2007년 중국자본에 의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중국이 3천5백만 달러를 지원해 2008년부터 시작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1년에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포함해 6층 건물로 오픈하여 세네갈 최대 문화공연장이 되었다. 이 극장의 건축역시 중국기업이 하여 내부 인테리어 곳곳에 다소 중국 분위기가 느껴지며, 자재는 물론 각종 기계적 부품들이 중국제품이어서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연간 국내 작품 50~60편을 무대에 올리며 해외작품도 10여편 정도 올리고 있다. 다카르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예술경험을 주고 있으며 매년 6월 정도면 인기있는 공연들은 좌석이 거의 매진된다고 한다.

#### MARKETING MANAGER I BABACAR BE

#### 극장운영의 수입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화부 1년 전체예산 총액이 500억 세파프랑(1,000억원 가량)인데 이중 박물관에 할당되는 예산비중이 가장 크다, 그리고 국립음악단, 장식미술관, 빛과소리(정부기관), 문학부, 영화, 공연장 등등에 배정되므로 우리 공연장에 배정되는 보조금은 매우 적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가 보조금 100프로로 운영된다. 건축당시 한화 약 1400억(2016년 6월 환율기준)에 해당하는 중국 자본으로 지어졌다. 2008년 12월 세네갈-중국 간 협약

#### 운영 특징적 프로그램

연극, 댄스, 음악 공연을 많이 올리는 편이나 음악공연이 가장 관객이 많고 호응도가 좋다. 연중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4일간 열리는 '까자망스 콩뜨모아 드 파세(과거에 대해 얘기해줘), 에크리봉 라 브니르(미래를 쓰자)'라는 축제가



있다. 4일간 예술가 500여명이 참가해 노래, 춤 등의 아티스트들이 문화를 알리는 액티비티를 하는 바자회로 작년 11월에 열렸다. 2015년에 중국 쿵푸를 하는 승려들 34명을 초청해 2일간 공연한 사례가 있는데 관객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 주된 장르 및 해외공연 사례

5년 운영기간 동안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장르는 음악분야가 압도적이었으며 살사, 힙합, 아프리카 음악이 주를 이루었다.

해외공연을 올리는 경우는 1년에 2~3편 정도인데 현재까지 중국, 이스라엘, 스위스, 스페인, 인도, 네덜란드, 루마니아, 카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말리, 러시아, 브라질, 미국 등의 작품이 공연되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 다양하게 올리는 편이나 아시아 비중은 적다. 아시아 공연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정서와 맞을지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다.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 인도, 중국공연 2건 외에 아시아공연은 올린 적이 없고 아쉽게도 한국 사례도 없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관심있게 검토할 것이다. 주로 대사관에서 추진해 진행되는 편이고, 초청할 때에는 숙박지원 정도로 초청한다.



### 극장 운영시 어려운 점

관리, 보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예: 전기세 한달 1,200만 세파프랑, 저작권, 테크니션 스태프 야근수당 등). 문화예술 홍보가 목적이므로 수익에 큰 목적을 두지 않는 편이라 다행이다. 생각보다 모객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방송사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홍보에 있어 방송의 힘이 크다. 방송사 자체 행사시 공연장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반대급부로 극장 공연시 방송사의 TV, 라디오 광고를 무료로 이용하는 편이어서 관객 유치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 10

## Theatre National Sorano

세네갈 다카르 '소라노 극장'



극장명	Theatre National Daniel-Sorano
소유자	세네갈 정부, 문화부장관이 대표
설립일	1966년 6월 30일
최초개관/재개관	1966년 7월 17일
초연작품	연극 '신들의 딸' 세네갈 작가 Abdo Andaka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
극장종류 및 형태	콘퍼런스홀 500석, 모임실 50석, 문서보관실, 사운드실, 비디오실, 비디오촬영실, 연습실 3곳 등

객석수	1,100석
무대사이즈	13m
극장타입	프로시니엄 무대
홈페이지	<a href="http://www.theatresoranodusenegal.com">www.theatresoranodusenegal.com</a>
주소	45, Bd. de la Republique - B.P. - 3243 - NINEA : 015902, Senegal
전화	+221 33 821 84 83
팩스	+221 33 822 38 79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 프로시니엄 무대가 있는 본관과 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채에는 드레싱룸, 의상디자인 워크숍 스튜디오, 리허설룸, 전시실 및 바, 사무실이 있다. - 1999년 리노베이션을 거쳐,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게 되었다. 128석 정도는 지역의 고위인사들 및 이사진들에게 배포된다.
총괄디렉터	Sahite SAMB SARR
이메일	sorano@orange.sn / sssamb@gmail.com

다니엘 소라노 국립극장이라 불리는 세네갈 국립극장은, 프랑스계 세네갈인인 유명 코미디언의 이름에서 명명되었다.





CEO I SAHITE SAMB SARR

### 주된 공연장르

음악공연이 많다. 아프리카 음악 및 재즈 공연이 주로 인기가 많고 드라마 형태의 연극공연은 관객들의 호응이 그닥 크지 않다. 공연장 바깥 로비에서는 전시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그림전시 뿐만 아니라 조각, 인테리어, 공예 등 다양한 오브제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 예산 및 수입

- 1년 예산총액 : 560,000,000세파프랑(11억원 가량.)
- 국가 보조금-100% 국가재정  
65,000,000 세파프랑(10%)가량 수익(2015년)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홍보목적으로 운영되는 편.

### 극장 운영조직

조직은 총괄디렉터, 사무국장, 관리서비스부장, 관리부장, 회계부장, 프로그램 감독, 기술감독, 공간감독, 드라마국장, 전통 서정시 앙상블국장, 발레국장(극장의 구조는 이 세 국의 활동으로 나뉘짐) 외 기술팀 등으로 구성

### 연간 해외작품

연간 공연편수는 50~60편 정도이다. 매주 주말마다 공연이 있고 평일에는 공연이 없는 편이다.

프랑스 혹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공연을 초청하는데 2016년 4월에 해외공연이 있다. 10월~1월까지 해외공연이 있다. 해마다 편차가 크다 작년엔 해외 공연을 많이 했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아시아공연은 한적이 없는 것 같다. 초청공연 자체가 비용부담이 크다. 공동프로젝트의 경우 극장이 보통 장소를 무상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대사관에서 주최하거나 정부초청의 경우 환영하는 편이다.

### 극장 운영시 어려운 점

아무래도 재정문제이다. 국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5년째 예산이 동결되었다. 예산의 지출부분은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분야는 공연제작, 소품 및 의상제작, 교육/문화부분이다.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케냐의 문화예술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케냐는 42개 부족들로 이루어진 다부족 국가이다.

사회의 정치·경제체제를 채택한 주변 아프리카국가와 달리 1963년 독립 이래 친서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 1980년대 말까지 가장 안정된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오래된 부정부패는 케냐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이 공존하는 케냐는 그 특성상 국가의 전통문화를 간단히 압축할 수는 없다. 수많은 부족들 중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마사이족을 살펴보면 마사이족은 그 무엇보다 어린이와 소를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다. 부모들은 아이를 돌보는 데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만큼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여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다.

아이들은 유년기 시절 첫 6년을 보내는 동안 낮에는 거의 노는데 소년들은 목동 놀이를 하면서 소와 염소를 키우는 법을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 마사이족의 전통문화 중 전통춤도 널리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대표 춤 중의 하나인 마사이족의 전통춤은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케냐의 주요 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케냐의 국립박물관에서는 매년 3월 나이로비에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축제를 주관한다. 이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일 큰 축제로 세계의 여러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3일간 지속되며 예술, 음악, 극장, 패션, 문학, 건축, 조각, 전통적인 공예들을 보인다.

케냐의 전통춤 중 서부 케냐 이수하(Isukha) 및 이다호(Idakho) 공동체에서 연행되는 이수쿠티(Isukuti) 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 춤은 북소리 장단과 노래 가락에 맞추어 빠른 템포로 추는 활기 넘치고 열정적인 춤이다. 이수쿠티 춤에 연주되

는 이수쿠티 북은 문화적으로 가족의 세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를 상징하는 큰북, 중간북, 작은북을 하나의 세트로 한다. 춤은 대개의 경우 남성과 여성 춤꾼으로 나뉘어 2열로 추며, 일사분란하며 역동적인 동작으로 추는 것이 특징이다. 노래의 주제도 평화와 단결, 화해 등에 관한 것이다.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화·언어·신념·철학 등을 효과적으로 구전 전승하고 보존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수쿠티 춤의 전승이 줄어들고 있으며 연행의 빈도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행자의 대부분이 연로한데다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전수받을 후계자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이수쿠티 춤 공연은 가족 내에서 오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어 왔고, 이수쿠티 북의 제작 기술과 연주법 역시 가족 내 세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왔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어느 방식으로든 전승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한 보호'가 절실하다.

1980년 11월 한국과 케냐간 문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케냐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에 대한 케냐 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케냐 국민은 노래, 춤, 음악에서 재능이 뛰어나며, 비주얼이 화려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한 공연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KK-Frontiers(한국 유학 경험자, 나이로비대학교 한국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친한단체)등 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11

## The Kenya Cultural Centre / National Theatre

케냐 나이로비 '국립극장'



극장명	The Kenya Cultural Centre / National Theatre
설립일	1951년
조직형태	반 독립적 정부기관(semi-autonomous Government Agency (SAGA)) 2015년 10월 2일 발효된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아래와 같으며, 3년간 이들에 의해 극장이 운영됐다.(케냐 문화체육관광부(the Cabinet Secretary for Sports, Culture and Arts)에서 임명) : Naomi Cidi Kumbatha, Wachira Waruru, Alison Ngimbuini, Nicholas Ole Moipei, Eric Kiniti, Ted Muthusi, Millicent Ogotu, Isaac Awondo, Baridi Lukas Manyasi
홈페이지	<a href="http://www.kenyaculturalcentre.go.ke">www.kenyaculturalcentre.go.ke</a>
주소	Kenya National Theatre Building, Harry Thuku Rd, Nairobi
전화	+254 726 008 677 / +254 722 739 894
이메일	director.culturalcentre@ymail.com/ aghamo@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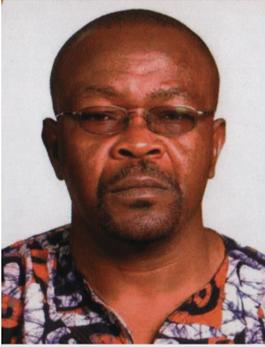
케냐 문화센터는 케냐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케냐 국립 극장(The Kenya National Theatre (KNT))이 먼저 건축되고 이후 나머지 건물들이 들어섰다.

공간으로는 공연장, 댄스 스튜디오, 체체 갤러리(Cheche Gallery), 강당(Ukumbi Mdogo), 정원(Mugumo Courty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냐 국립 극장은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예술은 물론 시각예술, 문학, 과학 및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케냐 문화예술의 발전과 프로모션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극장이 추구하는 가치로는 ‘G.U.I.D.E’라 하는 5가지 스텝인 ‘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구조(Good Governance, including professionalism) ②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정직(Uprightness, includ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③ 폭넓음/포괄(Inclusiveness) ④ 다양함(Diversity) ⑤ 평등(Equity)’을 들 수 있다.





CEO I AGHAN ODERO AGAN

케냐 국립극장은 64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설립되기 전인 1949년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정부의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1951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인종을 구분해 제한된 백인들만 극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일명 "High(Western) Culture"라 불리며 일부의 선택된 소수들만 이용했던 것이다. 당시 케냐 국립극장은 영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 발전해나갔다. 영국문화원의

지원에 의존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케냐국립극장은 "고급스런 문화센터" "문화=지위"등의 인식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케냐 문화센터는 예술가들을 위해 연습, 공연, 전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젊은 예술가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장소이다. 2030년 케냐 국제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위한 비전 2030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많은 문화관련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THE KENYA CULTURAL CENTRE/ NATIONAL THEATRE**  
Presents:  
**BENGA LIVE**  
Inaugural Edition

FRANCIS KAVUU DANGER  
KILIMAMBOGO BROTHERS

MAURICE JARABARE  
SUPER VICTORIA BAND

Date: 31st January, 2016 | Time: 3:00pm - 7:00pm  
Charges: @Kshs. 500 In Advance (Call: 0721 862 451)  
@Kshs. 800 at the Door

Kenya National Theatre (KNT) | Kenya Cultural Centre



For more info: [www.kenyaculturalcentre.go.ke](http://www.kenyaculturalcentre.go.ke) | Cell: 0721 862 451

**KENYA CULTURAL CENTRE**  
Incorporating  
**KENYA NATIONAL THEATRE (KNT)**  
PRESENTS  
**Ngoma KIKWETU!**  
Celebration of Kenyans' rich musical and dance heritage

Date: Saturday May 7th 2011  
Venue: Kenya National Theatre,  
Charges: 200/-  
Time: 3:00pm - 5pm

Featuring-  
BAKULUTU AFRICAN ENTERTAINMENT  
TAFJI DANCERS  
NYOTA AFRIKA

Tickets available @ Kenya National Theatre

Supported by:



Tel: +254 736 008 677  
Email: [director.kulturalcentre@gmail.com](mailto:director.kulturalcentre@gmail.com)



## 2016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 나이지리아의 문화예술

나이지리아는 1900년 이후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나 1960년 10월 1일 독립하였고, 1991년 12월 12일 기존의 수도 라고스(Lagos)에서 아부자(Abuja)로 이전하였다. 1960년 10월 7일에는 국제연합(UN)에 가입하였고, 한국과는 1980년 2월 22일에 정식으로 수교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총인구가 무려 1억 8100만명(2015년 추정)으로, 아프리카 인구 1위의 대국이다. 주요 종족인 하우사족, 플라니족, 이보족, 요루바족을 포함해 약 250만명의 다양한 종족이 있어 고유의 민족문화, 언어가 존재한다. 최고의 것은 북부 조스(Jos) 고원에서 발견된 BC 3~2세기의 철기문명인 녹(Nok)문화가 있으며, 라고스 국립박물관에는 전국의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아랍과 서부 유럽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나이지리아 토착문화로부터 직접 생겨난 풍부하고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전통예술은 독립 이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요족의 호리병박 조각품과, 베닌시티족, 아우카족, 이코트족의 가면 및 흑단 나무로 만든 두상(頭像), 샤가무족의 가시나무 조각, 나이지리아 풍물을 주제로 한 유화 등이 부유층의 집을 장식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수입품 대신 현지에서 직접 짜고 염색한 옷을 즐겨 입는다. 발굴품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에는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녹(Nok) 예술은 철이 제련되면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그보(Igbo) 공예품은 신성물 뿐만 아니라 청동, 동을 활용한 기술을 보여준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서는 조각품, 가면, 그림 등의 다양한 종류의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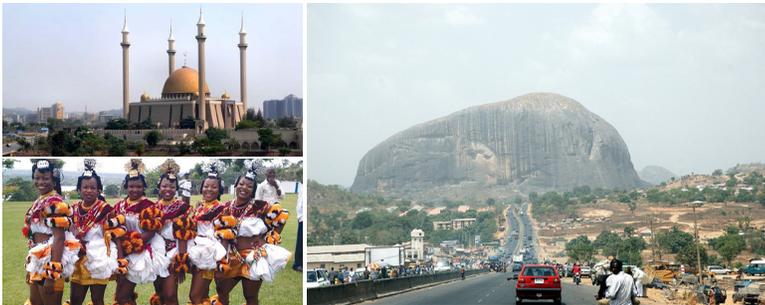
이바단 대학교와 이페 대학교에 부설된 아프리카학 연구소는 자리아와 이바단에 있는 미술, 드라마 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민속무용과 시(詩)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이를 널리 알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어로 쓴 소설과 희곡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가 있으며, 극작가로는 아프리카 인으로서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숲속의 춤》의 작가 윌레 소잉카(Wole Soyinka)가 있다. 음악으로는 펠라 쿠티

(Fela Kuti)라는 음악가가 전통적인 요루바족의 음악에 자유로운 재즈를 적절하게 혼합해 아프로 비트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소니 아데 (Sonny Ade)는 주술음악, 소니 오코순(Sonny Okosun)은 아프로 레게뮤직, 사데(Sade)는 소울 뮤직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지리아 문화예술관련 조직은 연방정부의 한 부처인 문화정보부아래에 있으며, 문화정보부는 문화부와 정보부로 나뉜다. 그중 문화부에 국제문화교류, 연예산업육성, 문화산업 및 유산의 3개 직속 부서가 있고, 8개의 산하기관들이 있다. 산하기관들은 블랙 아프리카 문화센터, 국립박물관 및 기념관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미술관, 국립문화교육연구소, 나이지리안 관광연구소, 국립극장 및 국립극단, 나이지리아 관광개발협력센터이며, 이중 문화예술위원회와 나이지리아 관광개발협력센터가 국가적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주관한다.

국립극장을 비롯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들은 이전의 수도이자 상업도시인 라고스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 아부자에는 이렇다 할 시설들이 없는 편이다.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2007년 총 5억 5천불을 투입하여, 아부자 시내 중심가에 17만 평방미터 규모로 획기적인 디자인의 문화예술센터 및 타워를 건축 중이다. 이는 문화예술센터, 밀레니엄타워 및 국립광장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로서, 내부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 문화센터, 호텔, 식당, 스포츠 센터, 식물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170미터 높이의 전망대 타워가 있어 아부자 시내를 한눈에 전망할 수 있을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조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약 30%의 공정에 그친 상태이다.



## 12

## National Theatre Nigeria

나이지리아 '국립극장'



극장명	National Theatre Nigeria
소유자	Federal Government of Nigeria
개관일	1976년 9월30일
초대 극장장	Garba Ashiwaju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in Bowl(3,500석) 현재공사중 - 3층 규모 45m×18m, 프로서니엄 무대</li> <li>- Cinema Hall(580석) 2개 - 20m ×10m, 프로서니엄 무대형식 공연장</li> <li>- Conference Banquet Hall(1,500석) - 프로서니엄 무대, 객석없는 홀형태</li> <li>- Exhibition Hall(1,500석) 2개 - 가변 무대, 홀형태.</li> <li>- VIP Lounge Hall(250석) - 소규모 행사용으로 쓰임</li> </ul>
홈페이지	<a href="http://www.nationaltheatreng.org">www.nationaltheatreng.org</a>
주소	Iganmu, Lagos State
전화	+234 80 2626 4232
공연담당자	Biodun Abbey(Director)
이메일	<a href="mailto:abebiodun@yahoo.com">abebiodun@yahoo.com</a>

나이지리아 문화예술 랜드마크인 국립극장은 상업도시인 Lagos의 중심부 Iganmu지역에 위치해 있다. 23,000평방미터의 크기에 31미터 높이로 1973년에 불가리아 건설회사 Technoexportsroy가 불가리아의 Varna에 있는 문화 스포츠 정보센터를 그대로 본따 착공했다. 1975년부터 사용은 되었지만 나이지리아 올루세군 오바산조 장군이 대통령으로 있던 1976년 9월30일에 공식 오픈되었다.

공연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으나 가장 큰 메인공연장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 외 공간이 영화 및 행사를 위한 강당이나 컨퍼런스용으로 주로 대관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극장 주변의 땅을 호텔이나 쇼핑몰,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을 운영할 민간에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때 극장이 곧 호텔로 바뀔꺼라는 소문이 나 돌기도 했다.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 BIODUN ABB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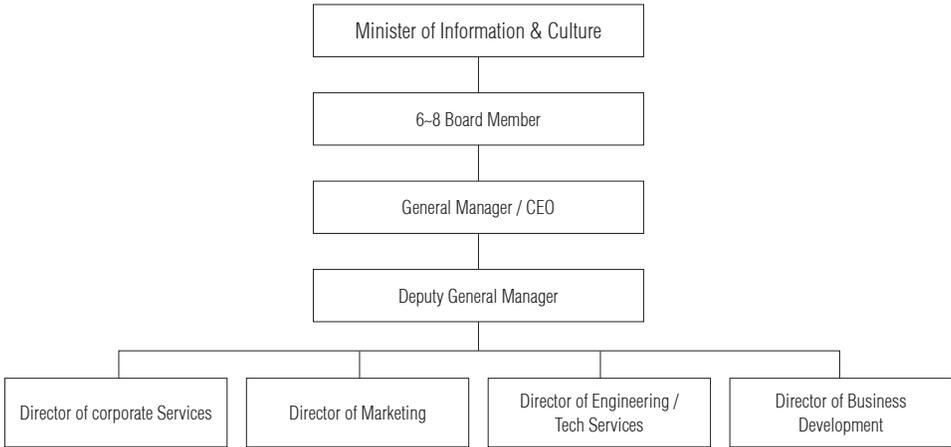
**재정상태**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금은 정부로 100% 환수한다. 수익금은 주로 휴대관료이다. 필름쇼, 라이브 퍼포먼스, 컨퍼런스 및 각종 워크숍, 소셜 액티비티들이 많이 개최되는데 공동 주최로 하기도 하고 취지에 따라 무상 대관하기도 하여 대관료가 많지는 않다. 그 외 16개의 카페 및 숍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이다.

**직원현황**

새로운 CEO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현재 공석이다. 라고스의 국립극장은 아부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고 전국 각 지역에 총 6개의 사무실이 있다. 이들 사무실은 극장홍보와 공연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한다. 전체 다 합하여 211명이 근무하며 라고스 극장에는 100명 정도 근무한다. 국립극장은 정부기관이니 근로자들 대부분이 공무원이고 이중 30~35명 정도는 비정규직 인력이다.

### 조직도



### 공연횟수

축제 위주에서 연간 30~40편 정도 올린다. 국립극장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는 않는다. 국경일 행사나 연례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연례 페스티벌이라 하면 신년 행사, 크리스마스, 이스터, 무슬림 페스티벌, 국경일 행사, 어린이날, 노동절행사 등등이다. 각 행사를 유관기관에서 주관하고 국립극장은 대관만 하는 경우도 있다.

### 공연장 특징

나이지리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외관과 함께 내부에도 여러 형태의 공연장들을 구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극장들이 음악과 댄스공연에 치우쳐 있는 반면 국립극장에서는 연극, 영화, 공연제작 지원, 페스티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기업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 권투시합도 했을 만큼 체육관 크기의 큰 공연장인 Main Bowl이 예산문제로 오랫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나이지리아 경제사정 악화로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국립극단

40~50여명의 배우가 활동하며, 급여는 국가에서 받는다. 주로 드라마와 음악, 어린이공연을 제작하며 연간 10~15편 정도 작품제작을 하는 편이다. 국립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올리며 극장의 중요행사나 페스티벌 기간에 참여한다.

국립극단 홈페이지: <http://ntn.com.ng>

### 해외공연 교류사례

직접 초청하지는 않고 해외팀이 공연장을 대관하여 공연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 공연을 올린 적은 없다.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다. 정기적으로 공고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예술가들이 제안을 먼저 할 경우 극장에서 검토하여 지원하는 편이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이지리안 연극과 교수가 6개월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와있다. 국립극장에 상주하는 국립극단과 같이 프로덕션 제작을 하고 있다. 공연제작이 완료되면 나이지리아에서 공연 후 미국에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교수가 1년에 3~4번 가량 와서 국립극단을 지도하기도 한다.



## 13

## Muson(Musical Society of Nigeria) Centre

### 나이지리아 ‘무손센터’



극장명	Muson(Musical Society of Nigeria) Centre
소유자	정부의 Muson이사회
개관일	1983년 10월 25일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 Agip Recital Hall(350석), 프로시니엄 형태 무대 - Shell Hall(약 1,000석) 강당형 복합무대
홈페이지	<a href="http://www.muson.org">www.muson.org</a>
주소	Address: 8/9 Marina, Onikan, Lagos State
전화	+221 33 821 84 83
공연담당자	Gboyega Banjo
이메일	<a href="mailto:gboyega.banjo@muson.org">gboyega.banjo@muson.org</a>



MUSON Centre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음악학교 겸 지역사회 이벤트 공간이기도 하다. 1989년에 어린이들과 음악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악기를 배우는 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클래식음악에 중점을 둔 음악교육을 지향하며 음악연주와 이론교육의 어린이교육을 강조하는 음악학교 The MUSON School로 자리잡았다. 나이지리아와 非나이지리아 음악인들 간의 상호이해를 돕고 음악인들을 위한 악기들과 시설을 제공하며 펀딩사업도 하는 이곳은 음악교육을 위한 기본과정과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2005년부터 개설되었다. 수업은 연주가 기본으로 각 학생들은 실내악 앙상블 및 솔로연주회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MUSON Centre는 지역공간으로서 수많은 행사, 시상식, 콘서트 등 지역엔터테인먼트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연장 특징**



**CEO | GBOYEGA BANJO**

무손센터는 음악학교로 시작했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음악으로 특화된 공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통 클래식 음악을 주로 하지만 커리큘럼에는 아프리카 음악 수업도 있어 나이지리아 전통 악기를 배우는 시간도 있다. 공연장은 음악공연 위주로 대관, 운영되는데 다만 매년 10월에 있는 무손 페스티벌 기간에는 음악뿐 아니라 연극, 시 콘서트, 오페라, 발레 등의 다양한 공연도 올리며, 포럼, 시각예술단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자인 전시

도 같이 열린다. 페스티벌을 제외한 정기공연은 한달에 1~2회 정도 하며 연간 15~20편 정도 올린다.

**재정상태**

무손센터는 주에서 아무런 지원금도 받지 않는 사설 공연장이다. 주로 공연장 대관료, 기업의 후원금, 아주 적은 티켓수익 정도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빠듯하다. 특히 최근엔 전기료를 비롯해 물가가 많이 올라 공연장 유지비가 많이

든다. 2년 과정의 Muson 스쿨 학생들 학비는 통신회사인 MTN재단에서 스폰서십으로 지원받는다. 행사마다 후원기업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 조직구성

음악교수는 16명 정도 된다. 그중 4명이 정규직 교수이고 나머지는 초빙교수이다. 1년에 3~4회씩 독일에서 지휘자를 초빙해 지도한다. 정규직 직원들은 약 30명 가까이 되며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연장 마케팅, 연간 콘서트 프로그램 기획, 테크니컬 점검 등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며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 모든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한다.

### 특징적 프로그램

#### ■ The MUSON School

2년 학위과정의 무손 음악스쿨이 가장 대표적이며 수준높은 교수법과 자체 공연장 시설 등을 갖춘 전문적 음악 학교로는 나이지리아에서 무손센터가 유일하다. 학생들은 매년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며, 올해는 95명의 후보자중 30명이 선발되었다. 이 외에도 무손 소사이어티를 통해 누구에게나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Muson Festival이다. 올해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큰 보름간 열리며 작년의 경우 13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그 외 크리스마스 콘서트 또한 무손센터의 큰 행사이다.

무손센터의 소속단체로 무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무손 합창단이 있다.

#### ■ MUSON Symphony Orchestra(MSO) 무손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6년에 40명의 단원들과 함께 설립된 MUSON 심포니 오케스트라(MSO)는 Paul Konye의 지휘아래 같은 해 첫 데뷔 콘서트를 했다. 오케스트라의 창립은 MUSON Centre의 예술발전계획사업의 대표적 업적이었다. 이 MUSON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나이지리아 유일의 전문 심포니 오케스트라이며 아프리카 음악을 미국을 거쳐 유럽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연주를 선보인다.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인 Thomas Kanitz를 만나 더욱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였는데 독일에서 6개월간 3차례나 연주를 하며 호평을 받았다.

#### ■ The MUSON Choir 무손 합창단

MUSON 예술가 위원회 회원이었던 Francesca Emmanuel과 Emeka Nwokedi가 1999년에 합창단을 영구그룹으로 설립해 매년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하며 MUSON Festival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다. 무손 합창단은 40여명의 대규모로 중국 공연도 다녀왔으며 지방공연도 여러 차례 다녀온 바 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스쿨 합창단과 45~50여명을 단원으로 하는 무손 소사이어티 합창단이 있다.

#### 해외공연 사례

소속 단체인 무손 합창단이 중국공연을 간 바 있고, 학생그룹이 몰타에서 공연한 사례가 있다. 무손페스티벌에 아이리쉬 그룹, 인도공연팀이 참가한 적도 있고,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종종 참여한다. 해외 공연팀과의 콜라보 연주, 페스티벌에 참가 등은 언제나 환영한다. 10월에는 펠라브레이션 페스티벌도 있어 순회공연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 14

## Freedom Park(Art Centre)

나이지리아 '프리덤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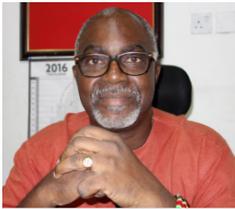
극장명	Freedom Park (Art Centre)
소유자	라고스 주
개관일	2010년 10월 1일 / 재개관 2011년 10월 1일
극장종류 및 형태 객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in Stage(1,000석), 야외무대, 스탠딩 페스티벌 경우 3천명 수용</li> <li>- Amphi Theatre(약 300석) 야외 오픈무대</li> <li>- Food Court Thatrel(약 250석) 야외 무대</li> <li>- Skeletal Cells(약 100석) 야외 가변무대</li> </ul>
홈페이지	<a href="http://www.freedomparklagos.com">www.freedomparklagos.com</a>
주소	Old Broad Street Prison Yard 1, Hospital Road, Lagos Island.
전화	+234 80 9500 6567
공연담당자	Tola lbeh
이메일	<a href="mailto:omotola@freedomparklagos.com">omotola@freedomparklagos.com</a>

프리덤파크는 도심중앙에 1헥타르 크기의 부지에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들이 들어서 있는 문화공간으로 1872년부터 1972년까지 100년간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1973년 이후 30년 넘게 수풀더미 공터의 버려진 땅으로 있다가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의 해인 2010년에 나이지리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건축가 출신인 현재의 CEO Theo Lawson에 의해 이곳은 3개의 야외 공연장, 3개의 갤러리, 박물관, 푸드코트 등으로 건축되었다.



최근에는 야외에 구름다리 형태로 공중 전시공간을 조성해 놓았고, 야외 일부분은 버추얼 오피스(Virtual Office) 겸 플라마켓으로 활용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현재 메인 야외공연장이 있는 장소는 예전에 감옥으로 쓰이던 때에 사형집행 자리라고 한다. 죽음을 집행하던 공간이 뜨거운 Live 무대로 바뀌었으니 아이러니하다.



CEO | THEO LAW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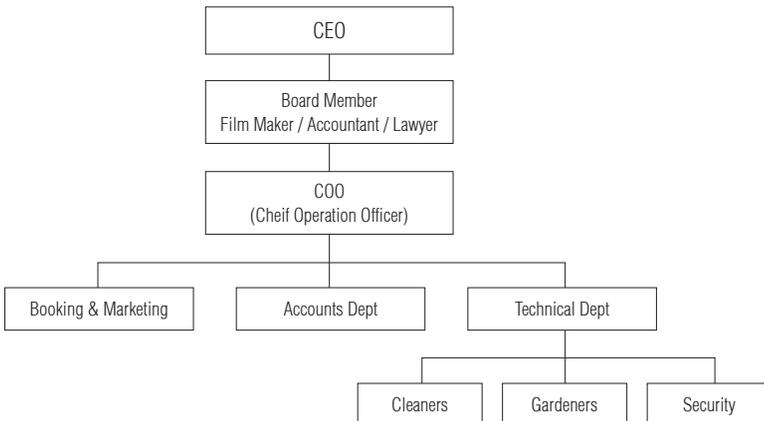
**재정상태**

시 예산으로 건축은 되었지만 이후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 오히려 수익금의 25%를 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수입금은 공원 입장료 (200나이라)와 푸드코트 5개 점포의 임대료, 공연장 대관료 등이다.

**조직도**

총 1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4~5명이 정규직 인력이다.

**Freedom Park Art Center**



### 공연횟수

공연은 일주일 내내 있는 편이다. 월요일은 영화상영이 있고 화요일엔 퀴즈나 잇, 스피커즈 코너, 가라오케가 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라이브뮤직, 토요일과 일요일은 재즈 및 라틴뮤직 공연이 있다. 뮤직, 댄스, 드라마극 등 연간 300여편의 공연을 하고 있다. 일주일 내내 공연 및 관객 유치가 쉽지는 않지만 프리덤 파크 내에 상주하는 예술가 및 입장객들도 적지 않아 공연 때 관객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다. 야외공연장이라 날씨가 궂은 날은 공연이 종종 취소된다.

### 해외공연사례



가나, 토고, 베닝 등 아프리카인 뮤지션들의 공연들이 많고 2015년에 칠레 밴드인 Newen Afro-beat팀이 공연한적 있다. 항공 및 숙박·교통비를 반 정도 부담했는데 극장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올해 아르헨티나 공연팀을 초청했다가 예산문제로 불발되었다.

### 특징적 프로그램

#### ■ Afropolitan Vibes

매월 세째주 금요일엔 Afropolitan Vibes라는 이름의 뮤직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3년째 이어오고 있다. 3~4개 음악밴드와 아프리카인 국가의 밴드 몇 팀과 함께 메인공연장에서 하는 콘서트로 관객이 평균 2천명이 오는 편이다. 이때는 입장료가 1000~1500나이라로 상승한다.



#### ■ Lagos Heritage Festival



가장 큰 행사로는 Black Heritage라고도 불리는 Lagos Heritage Festival이 매년 1주일간 열린다. 이 행사는 아프리카 유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가 코디네이팅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월레 소잉카는 현재에도 프리덤파트 내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다. Lagos Heritage Festival은 스쿨전시, 전통공연 등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성격의 행사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 Felabration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지리아 음악가인 고 펠라쿠티(Fela Kuti)를 기념하는 Felabration은 10월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유명한 음악 축제이다. 펠라쿠티는 미국의 블루스 · 재즈 · 펑크를 전통적인 요루바 음악과 융합시켜 독특한 아프로비트(Afro-beat)라는 아프리카풍의 현대음악을 만들어내 이후 수많은 아프로비트 음악추종자들을 만들어냈다. 펠라쿠티의 딸인 Yeni는 Felabration Organizing Committee(FOC)를 설립해 1년마다 전용 공연장인 The New Africa Shrine에서 펠라쿠티 페스티벌인 Felabration이 개최하고 홍보한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 라고스 공연장 곳곳에서 동시에 Felabration이 개최되며, 여기 Freedom Park에서도 개최한다.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기도 했던 펠라쿠티를 기려 페스티벌 전에 10여개 중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스피치 경연도 한다.

2017년은 펠라쿠티 사망 20주년 기념의 해이다. 펠라쿠티 음악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전 세계의 팬들이 런던, 아르헨티나,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오사카 등에서 Felabration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부분 펠라쿠티 음악을 감상하고 리믹스의 편집곡을 선보이는 음악축제 형식이나 사진전 등으로 간소하게 기념행사를 하는 곳도 있다.

프리덤파크의 Felabration은 첫날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매일 3~4개의 뮤직, 댄스 위주의 공연이 1주일간 총 20편 이상 공연된다.

그 외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페스티벌이 1년마다 3일간씩 개최되고 라고스 북&아트 페어가 3일간 개최된다.



## 참고문헌 Reference

### 국내자료

- 한국국제교류재단(2013) '지구촌한류현황' 2013. 12. 20.
- 외교부(2015) '세네갈 개황 2015' 2015. 5.
- 외교부(2010) '모로코 개황' 2010. 9.
- 외교부(2011) '나이지리아 개황' 2011.8.
- 저스트고(Just go) 국가별 여행정보, 시공사

### 해외자료

- State Theatre Annual Report 2014-15
- Artscape Theatre Centre Annual Report 2014-2015
- Baxter Theatre Centre Annual Review 2012/2014

### 인터넷사이트

- [www.tnm5.ma](http://www.tnm5.ma)
- [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Mohammed-VI/232583020100441)
- [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https://www.facebook.com/pages/Th%C3%A9%C3%A2tre-Royal/182612565151606)
- [www.grandtheatrenational.org/fr](http://www.grandtheatrenational.org/fr)
- [www.theatrenationaldusenegal.com](http://www.theatrenationaldusenegal.com)
- [www.artscape.co.za](http://www.artscape.co.za)
- [www.baxter.co.za](http://www.baxter.co.za)
- [www.magnettheatre.co.za](http://www.magnettheatre.co.za)
- [www.statetheatre.co.za](http://www.statetheatre.co.za)
- [www.joburgtheatre.com](http://www.joburgtheatre.com)
- [www.kenyaculturalcentre.go.ke](http://www.kenyaculturalcentre.go.ke)
- [www.babelfan.ma/tous-les-lieux/categorie/38/Theatres.html](http://www.babelfan.ma/tous-les-lieux/categorie/38/Theatres.html)
- [www.maroccultures.ma](http://www.maroccultures.ma)
- [www.cctv.com](http://www.cctv.com)
- [www.nationaltheatreng.org](http://www.nationaltheatreng.org)
- [www.muson.org](http://www.muson.org)
- [www.freedomparklagos.com](http://www.freedomparklagos.com)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에 파견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나이지리아는 물론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는 리서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안타깝게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우리나라 공연진출이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매우 훌륭한 공연장들이 많이 있었고 모로코에는 세계적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도 커져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규모의 공연장들이 건립중에 있었다.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한국과의 공연교류에 호의적이었으나 예산문제로 초청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공연 외에도 교육프로그램이나 레지던시, 축제참가 혹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국 대부분은 새로운 사람과의 유선이나 이메일 접촉에 소극적이므로 방문·대면교류가 가능하지 않다면 믿을만한 기관을 통한 접촉, 혹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짧은 기간 안에 5개국 14개 공연장을 방문하고 빈약한 자료들로 정보집을 작성한다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어 인터넷 자료와 외교부 개황자료를 많이 참고하였다. 정리하고 보니 2년 파견기간 동안 아프리카 유일한 파견자로서 책임감이 컸는데 작은 결과물이나마 남길 수 있어 기쁘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준 문화원, 예술경영지원센터, Kira님께 감사드리고, 정보가 전무하다시피 한 아프리카 지역 공연장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한다.

2016년 6월

지미연

Jee Meeyoun

(fitze@hanmail.net)

현,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문화예술행사 기획팀장



###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재외 한국문화원에 국제교류 전문인력(기획자) 및 예비인력(인턴)을 파견, 각 권역별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안목과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총5개 국가에 파견된 5명의 전문인력(기획자)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지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총 8개 국가에 파견된 8명의 예비인력(인턴)은 한국문화예술을 홍보하며 미래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팀

next@gokams.or.kr

www.gokams.or.kr

# 2016

## 아프리카 권역별 공연예술 극장 정보

발행일자 | 2016년 6월 30일

발행처 |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 및 제작 | 지미연

디자인 | 이해인

인쇄 | 사회문화사

※ 책자의 판매, 전자, 복사를 금합니다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Nigeria



문화체육관광부

